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4. 4. 17.
복지문화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
- 발 의 자: 박왕규 의원 등 6명(박왕규, 장호섭, 이선주, 정순옥, 박정환, 최홍린)
- 발의일자: 2024. 4. 5.(금)
- 회부일자: 2024. 4. 5.(금)
- 상정 및 의결: 제30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(2024. 4. 17.)

## 2. 제정이유

- 달서구 위기청소년의 발굴·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사회적응과 성장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지원계획 수립·시행(안 제4조)
- 라. 지원사업 및 위탁(안 제5조~6조)
- 마. 협력체계 구축 및 활용(안 제7조)
- 바. 비밀 누설의 금지(안 제8조)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, 제8조, 제49조
  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조, 제13조, 제14조

○ 비용추계: 비대상

○ 입법예고(2024. 4. 5. ~ 2024. 4. 15.)결과: 의견 없음

#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이 제정조례안은 위기청소년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것임.
- 여성가족부는 2021년 「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」을 발표하고, ‘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’을 구축해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해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및 지원 서비스 연계 방안을 마련하였으나
- “자살예방백서”(보건복지부, 2023년)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율은 2017년 7.7명(인구 10만 명당)에서 2021년 11.7명으로 51.9% 증가했고, “청소년건강행태조사”(질병관리청, 2022년)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시도율은 2020년 2.0%, 2021년 2.2%, 2022년 2.6%로 증가하는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함.
- 이에 따라 2024년 4월 현재 부산광역시, 전라남도 등을 비롯한 17개 자치단체에서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회에 기여하도록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 또한 충분하여
-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, 이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대하여 명시한 이 조례안은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,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 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## 7. 심사결과: 원안가결